

## [정치·사회]李大統領 “예산의 선택과 집중”필요성 강조

- 2009, 첫 국무회의의 주재

월드뉴스



▲ 이명박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
 © 출처:청와대

이명박 대통령은 6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“예산을 조기 집행할 때 부처 간, 지자체 간 협력이 잘 되면 시너지가 나겠지만 따로 따로 하면 낭비가 많을 수 밖에 없다.”며 상반기 예산 집행에 대한 중복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했다.

이 대통령은 “예산을 집행하는 데만 목적을 두면 효율적 집행이 제대로 안될 수 있다.”며 “사전에 철저히 협력”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 즉, 예산집행의 ‘선택과 집중’을 강조한 것이다.

또한 경제살리기 정책추진과 관련, “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면 좋겠다.”고 말했다.

이 대통령은 이어 “경제위기 극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중앙부처에서부터 전국 16개 시·도와 말단 군까지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”면서 시·도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했다.

또 “비상시에 하급직 공무원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공무원지침에 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. 위기 상황을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성과가 굉장히 떨어진다. 일선 공직자들까지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교육을 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<출처:청와대>